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5월 4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5.3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5. 3.(화)	담당부서	통상법무기획과
담당과장	전동욱 과장(044-203-4870)	담 당 자	홍승범 사무관(044-203-4878)

산업통상자원부, '22년 제2회 「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」 개최

- 정부 · 업계 통상전문가,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논의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, 이하 산업부)는 5월 3일(화), '22년 제2회 『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』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.

【 회의 개요 】

- **일시 / 장소** : '22.5.3(화), 14:00 ~ 15:00 / 온라인
- **주 제** : "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"
- **주 최 :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**
- **참 석** :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(주재) 외 협회, 업종단체, 기업 통상담당자 등 약 40명
  (발표자)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**(토론자) 김재희**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

○ 금일 제2회 "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"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, 협회,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"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"을 주제로, ①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(안)과 ②통상위협대응조치(ACI) 입법(안)에 대해 논의하였다.

* 제1회 "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: 인도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(①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, ②국내 항소심 절차, ③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 등)

□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, EU의 경우 공정 경쟁(level-playing field)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,

○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(안)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,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,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.

【 EU 新통상규범 사례 】

■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(Regulation on Subsidies distorting the internal market)

○(도입목적) 외국정부 보조금 수혜 기업의 EU 內 기업인수·공공조달 시 경쟁왜곡 방지

○(적용대상) ❶기업결합*, ❷공공조달 참여**, ❸보조금에 따른 경쟁왜곡 의심정황 등

* 결합 기업의 EU 內 매출액 5억€ 이상 & 최근 3년간 5천만€ 이상 외국보조금 지원

** 공공조달 가액 2억5천만€이상 & 최근 3년간 역외보조금 수혜

○(대응조치) ❶❷의 경우 사전신고의무 발생, 경쟁왜곡 판정 시 제재 조치 부과

■ 통상위협대응조치(Anti-Coercion Instrument)

○(도입목적) 제3국의 조치 또는 조치위협에 따른 EU의 무역·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방지

○(적용대상) EU·회원국의 주권 행사를 저해하는 조치 또는 조치위협을 취하는 제3국

○(대응조치) 제3국과 협의 또는 의사회 의결없이 집행위가 제재조치* 부과 가능

* 현 법안에는 관세인상, 쿼터도입, 상품·서비스 교역 및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조치 예시를 포함하고 있지만, 필요시 집행위의 재량 하에 추가 유형의 조치 도입이 가능

□ **(발표)**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(안)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.

○ 먼저 "역외보조금 규제 입법(안)"과 관련하여, "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&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"고 설명하며, "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"고 언급하였다.

○ 또한 "ACI(안)"의 경우, "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,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(coercion)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,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(anti-coercion)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"고 하면서, "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"이라고 언급하였다.

□ **(토론)**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“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(안)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,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,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”고 평가하였다.

□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,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홍승범 사무관(☎ 044-203-487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20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Ⅰ.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○ **(목적)** 주요국들의 통상관련 제도* 및 동향 파악, 관련 협회·업계·전문가들과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모색

* 예시 : (美)경쟁법안, 혁신경쟁법 (EU)공급망 실사, 역외보조금 규율, CBAM (印) 반흡수제도 등

Ⅱ. '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요

○ **일시** : '22.5.3(화) 14:00-15:00

○ **장소** : 화상회의 / 참석자 개별 접속

○ **주제** : 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
(❶ 역외보조금 규율 ❷ 통상위협대응조치(ACI))

- **(발제)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**
- **(토론)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**

○ **참석자** : 산업부 통상법무정책관(주재) 외 협회, 업종단체, 기업 등

- **(협회)** 한국무역협회, 대한상공회의소, KOTRA 및 회원사
- **(업종단체)** 철강협회, 석유화학협회, 자동차협회, 반도체협회, 전지산업협회, 정밀화학협회, 화학섬유협회 등 희망하는 업종별 협회 및 회원사

※ 참석범위는 초청자로 제한

Ⅲ. 세부진행(안)

시 간(분)		내 용	비 고
14:00~14:05	5′	인사 말씀	통상법무정책관
14:05~14:35	30′	EU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 - ❶ EU 역외보조금 규제 - ❷ 통상위협대응조치(ACI)	권소담 변호사 발제
14:35~14:40	5′	지정토의 (의견 및 질문)	김재희 변호사 토론
14:40~15:00	20′	자유토론	참석자